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2:4)

◎ 생활지침 ◎

-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 중 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새 예배당 건축심의 통과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도 완료... 곧 착공 가능

새 예배당의 건축설계도가 14일 오후 강남구 건축심의위원회를 무수정 통과됐다. 또 지난 달 31일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끝마쳤다. 이로써 교회는 머지않아 새 예배당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교회가 건축허가 사전예고신청서를 처음 접수시킨 것은 지난 '96년 4월 25일로 무려 1년 4개월이 거의 다 되어서 건축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새 예배당 건축 문제는 종교부지에 종교건물을 짓는 것이어서 법적으로 하자는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현지의 일부 주민들이 '신축건물로 인한 아파트 붕괴 위험과 교통량 급증'을 내세워 심한 반발을 보여 수차례 건축계획 심의에서 보류됐었다. 교회에서도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것이 복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어려움을 참고 인내로 견뎌왔었다.

그러나 온 교회가 뜨거운 기도를 쉬지 않았고 교회 건축위원들도 기도하면서 인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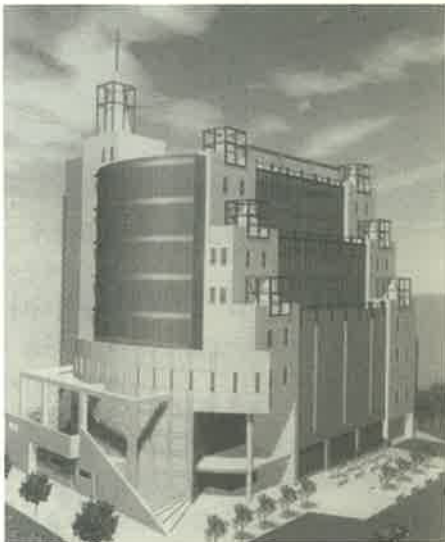
하고 이해와 설득과 양보를 계속하면서 끝까지 지역 주민들을 상치 않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지난 홍해작전 직후인 7월 5일 마침내 주민과 협의를 도출해 냈고 8월 14일 구청 심의에 통과를 하게 된 것이다.

강남구 대치동에 들어설 새 예배당은 건축면적 14,956평방미터(4,524평)로 지상 8층 지하 3층의 총 11층 건물로 본당에 2,500명을 수용하는 21세기형 도시교회 모형을 갖춘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우리 교회는 교회터를 양도하고 경기도 수지지역으로 이사를 한 목감감리교회로부터 7월 31일자로 등기를 이양받고 대지소유권을 확보했다. 이제 건축세부설계가 나오는데로 굴토심의, 에너지심의를 거쳐 시공회사를 확정하면 착공을 하게 된다.

당회장 이종윤목사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 국내외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께



심의를 통과한 최종 설계도에 따른 새예배당의 모습

감사를 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협조해 주신 관계자들에게 크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평화의 왕이시며,
모든 민족들의 주인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듯
우리 민족을 일제의 침략과 억압에서
해방시켜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 민족을 억압에서 풀어주신 그 날,
한반도는 외세에 의해 남북으로 갈라져
52년의 세월이 흘렀나이다.

오, 주님
지난 날의 아픈 역사 속에서
당신의 교회가 민족 분단의 십자가를
바로 감당하지 못한 탓에
민족의 갈등과 불신을 더욱 깊어지게 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온 세계가 한 목소리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오니 들어주소서.
주님 앞에 우리 함께
화해와 통일을 맹세하였건만

광복절기념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문

아직도 화해의 길조차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 앞에 통회합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의 자녀들인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사랑으로
하나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예수사랑으로 하나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치셔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데올로기와 냉전의 논리를
과감히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 땅에 맺힌 오해와 불신을 풀게 해 주시고

7천만 겨레가 서로 손을 내밀어
한 핏줄을 나눈 형제 자매를 열싸안아
평화통일의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비의 주님!
우리의 한 지체가 아파하고 있을 때
그 고통은 서로 나누며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세우는 일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평화를 일구는 일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게 저희를 도와주소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셨으니
우리 민족이 화해하고
이 땅에 평화통일을 이루는 그 날,
주님께서 친히 이 민족의 하나님 되심과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되심을
저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해설교
여호수아서

5장 12~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와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와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5:13 - 15).

사령관의 사령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강을 건너 후 하나님의 명령대로 길갈에 기념비도 세웠고 할례도 행했으며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접근하려는 순간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칼을 든 이가 단지 군인의 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을 여호와와 군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즉시 그의 앞에 엎드려 절하고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1.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사람은 누구인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린 것은 그가 힘이 센 인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군대장관은 인간의 모양을 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예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동산에 나타나셨을 때 그 모습이 마치 사람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창3:8 - 10). 마르레 상수리 나무 아래 있던 아브라함은 세 명의 길손을 만났습니다(창18:1 - 17). 성령강림 이전에 에스겔 골짜기에 성령께서 임하셨듯이 성경에 나타난 이같은 말씀은 베들레헴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을 수차 나타내셨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서는 야곱과 씨름한 상대를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호세아서에서는 그를 ‘천사’라고 불렀습니다(창32:24 - 30, 호12:3 - 5). 야곱이 받은 새 이름은 ‘이스라엘’이었는데 이는 “하나님에 의해 정복된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과 씨름하여 그를 굴복시키고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2. 하나님의 군대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분은 유대인 군대를 지휘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사령관인 여호수아는 여리고 작전을 하달해 달라고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7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위해 할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군대’는 ‘천사들의 군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군대 장관은 천사의 군대 사령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 - 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사자(使者) 즉 천사들로 야곱을 격려하기 위해 온 무리입니다. 마하나임은 두 진영(two camps)이라는 뜻입니다. 이 군대를 ‘두 진영’이라 함은 야

곱의 지상 진영과 천사들의 더 큰 진영을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3 - 18절에서 벤하달이 엘리사를 잡으려 할 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른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사가 종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했을 때 그의 종도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왕하 6:15 - 17).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들은 큰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대는 아람사람의 눈을 멀게 하여 사마리아까지 끌고와 죽이지 않고 물과 식물을 주어 먹게 하고 돌려 보냄으로써 다시는 아람군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감사하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호와와 사자를 군대처럼 진치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는 베드로가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를 꾸짖으시며 열두 영이 더 되시는 무리를 치실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한 ‘여호와와 군대’란 바로 이같은 천군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3. 그는 누구를 위하는가

여호수아가 군대장관을 향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고 묻자 그는 “아니라(Neither) 나는 여호와와 군대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을 위함도 아니고 원수들 편에 서기 위함도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 그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군대가 여호수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있는 한 여호수아를 위한 군대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장관의 지휘를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묻곤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함입니까 아니면 원수들을 위함입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둘 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으로서 이제 왔느니라”라고.

결론

여호수아는 예기치 않았던 이 손님을 처음엔 한 군인으로 생각했으나 나중엔 무릎을 꿇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은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주신 말씀과 같습니다(출3:5). 신을 벗는 것은 경외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부전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이종운 목사

고등부수련회를 마치고

“낮엔 신선한 바람, 밤엔 서늘한 바람”

“쉬지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정한나(2학년)

나에게 있어서 '기도'란 항상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었다. 특히 수련회에 참석할 때마다 다른 친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때면 잘 이해가 안되었다. 그런 나에게 이번 수련회는 다른 때보다 더 특별했던 것 같다. 저녁 부흥회 설교가 끝나고 기도를 할 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회개의 기도를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드릴 수 있었다.

첫째날 저녁에는 두 사람, 네 사람, 여덟 사람씩 그룹을 이루어 기도의 시간을 가졌고 둘째날에는 남학생들은 남학생들끼리, 여학생들은 여학생들끼리 짝을 이루어 돌아가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내 기도만 할 때보다 친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마음이 훨씬 더 활짝 열리는 것을 느꼈다.

기도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습관이나 믿음이 많이 변화되었음을 느끼며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름 수련회를 준비해 두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뵈었으니”

유나연(1학년)

저녁 부흥회때 설교 말씀을 통해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 사실 이번 수련회를 시작하기 일주일 전부터 나는 장래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고 수련회 동안은 그러한 기도가 가장 중요하던 시기였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이다.

목사님께서 “21세기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가지로 갖추어야 하는데 첫째는 지력(知力), 둘째는 체력(體力), 셋째는 영력(靈力)이라”고 하셨다. 성경 속의 위대한 지도자들 특히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은 없다는 말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렇다면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나의 장래도...!?

내 꿈은 대학교수가 되는 것이다. 수련회를 통해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지 감히 장담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도록 실력도 기르며 기도도 할 것이다. 그리하여 언젠가 세계적 교수가 되어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었다는 인정도 받기를 원한다.

“싱싱하고 우람한 믿음의 짝”

김미영(교사)

창밖으로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울타리를 이루고 아담한 산들이 사방을 둘러 우리를 보호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충분히 만끽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낸 이 시간은 평생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고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이다.

첫날, 도착하자마자 공동체훈련을 통해 주님이 주신 계명의 의미를 익혔다.

저녁부흥회 시간, 말씀을 통해 미래 세계 지도자를 향한 도전을 받았다. 머리숙여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고등부 학생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싱싱한 하고 우람한 미래라는 나무의 싹을 볼 수 있었다.

첫날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자상하심에 감사했다. 예배 시간 드렸던 기도처럼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은 바람이 낮에는 신선하게 밤에는 서늘하게 말씀을 듣고 쉬는 우리를 감싸 안았다.

한낮의 태양 아래서도 소나무 그늘 드리운 휴게실은 가을의 신선함을 느끼게 해 주었다. 모두 모여 친구의 간증을 듣고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나누었다.

이종윤 목사님의 특강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 놓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 더욱이 이 시간을 통해 목사님을 더욱 친밀하게 느낄 수 있었다.

둘째날, 역시 공동체 훈련으로 뜨거운 한 낮을 열심히 보냈다.

저녁 부흥회 시간, 결단을 촉구하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을 느꼈다. 캠프파이어의 불길보다 더 뜨겁게 서로 손을 맞잡고 한 형제, 한 자매로 고백했다.

기지와 재치가 번득이는 조별 공부시간, 선생님이 ‘대스타’가 되고 ‘정의의 사도’들도 등장하자 고등부 학생들은 더위는 까맣게 잊을 만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끝나는 시간이 다가왔다. 두 대의 버스가 우리를 기다렸다. “어서 나가 내가 받은 은혜를, 승리의 삶을 보여주라, 주의 계명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지 자랑하라”고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박창수(교사)

“주의 계명을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주제로 8월11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 홍천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이번 수련회는 고등부 학생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고 모든 인생의 키를 잡고 많은 고민과 문제를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저녁마다 열린 부흥회에게 미래의 지도자인 학생들은 여호수아와 같이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을 결단했다. 학생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 가정, 교회 나아가 민족과 세계를 향해 기도의 폭을 넓혔다. 아울러 교사와 학생들이 손을 맞잡고 뜨겁게 기도한 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

어떤 학생의 간증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과의 동행을 체험하지 못하던 갈등 속에서 참된 해결의 열쇠를 찾는 모습을 대할 때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모습이요 진정한 결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어그러지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믿음을 충만케 하시며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원해 본다. 특강을 통해 신·구약성경은 영원한 권위가 있으며,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며, 우리 삶의 지침임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 21세기 한국과 세계 속에 귀한 인물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학습 · 세례식

8월 학습 · 세례식이 20일(수) I · II부 예배 시 거행된다.

새가족부에서는 이번에 학습이나 세례를 받는 성도들을 위한 교육을 지난 주일과 오늘 각각 실시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를 위해 18일(월) 오후 7시 한차례의 교육 기회를 마련해 두었다. 학습 · 세례자 문답은 19일(화) 오후 7시에 실시한다.

서울음악학교 안내

서울교회 음악학교가 9월부터 시작된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서울음악학교에서는 성경, 발성, 가창, 음악이론, 독보요령, 호흡법 등을 배울 수 있다.

서울음악학교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신앙적 성숙과 아울러 음악 지식의 함양으로 좀 더 아름답고 조화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설된 것이다. 참가대

상은 찬양대원이나 찬양대원 지원자 뿐만 아니라 연령이나 인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사는 본교회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중심으로 하되 필요하면 외부인사도 초빙할 계획이다.

서울음악학교의 학제는 1년 2학기(1학기는 15주)로 1학기는 3~6월, 2학기는 9~12월이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이연숙 집사(가브리엘 찬양대원)에게 하면 된다.

▶민족교회의 사명 감당케 하시려고

“두 가지 기쁨으로 맞이한 광복절”

승영강 (권사, 4교구)



올해의 광복절은 여느 때보다 더 큰 감격으로 민족 해방의 기쁨을 기념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일제 압박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날을 앞두고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의 소식을 안겨 주셨다. 새 예배당을 세우는 일의 장애였던 건축심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제작년 하나님께서 대지동의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교회 건축부지로 보이셨을 때의 환희를 잊을 수 없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건축이 지연되는 일년 반 동안 우리는 참으로 애타게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았었다. 이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으니, 할렐루야! 감사할 뿐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된 그릇으로 주님의 일꾼 삼으시려고 더욱 그간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나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서울교회가 민족교회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 민족에게 뜻깊은 날인 광복절에 좋은 선물을 주신 것 같다.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리면서 헌당하는 그 날까지 남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도록 더욱 겸손히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기도의 어머니로 우리 교회 권사회 초대회장을 지내신 이신일 권사님과 몇달 후엔 권사임직을 받으실 장영순 집사님은 무엇이 급하셔서 그리 일찍 하나님 품으로 가셨는지... 며칠 더 계셨더라면 이 소식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를 생각하니 섭섭하기만 하다. 그러나 이제 이루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그간 이 권사님과 장 집사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들으셨다는 귀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권사님과 장 집사님도 하늘나라 주님의 품에서 안식하시며 이 기쁨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 순례자 컬럼 ✧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앞에 부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서라기 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옥함을 깨뜨린 것이다. 그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아픈 마음에 동참하고 싶었던 것이다.

마리아의 슬픔과 오욕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죽음에 이제는 자기가 함께 슬퍼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 여인은 예수의 발앞에 바짝 앉아 그의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인류의 무거운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위해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그녀는 자문자답을 했던 것이다. 마침내 그녀는 자기의 소유 중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 깨뜨려 바치게 된 것이다.

가룟 유다는 이를 말렸으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가만 두라고 하셨다. 사랑이 행동으로 표현되듯 신앙도 삶으로 표출되는 법이다.

옥함을 깨뜨려 향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온전한 헌신이 있도록 기도하자.

동정

- ◆ 이종윤 목사는 21일(목) 개혁신학교 계절대학에서 “21세기 목회전망과 교회성장”이라는 제하의 특강을 한다.
- ◆ 오늘 봉사자를 위한 점심식사는 채항석 · 이종심 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기독교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상』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나라와 민족을 위해
2. 교회학교의 여름행사가 결실할 수 있도록
3. 제 12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